사카네구치 감시소 터

17세기 초기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하게 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는 이와미 은광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은광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모든 출입구에 감시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소의 관리들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막부의 재원인 은이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굴 지역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채굴지 주변에는 이러한 감시소가 10 개소나 있었습니다. 또한 막부가 직접 관리하고 150여 개의 인근 마을을 아울렀던 긴잔고려라는 지역 일대에는 더 많은 감시소가 있었습니다. 사카네구치는 채굴장을 오가는 물류를 수송하는 주요 항만인 유노쓰항으로 연결된 길의 마지막 감시소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감시소가 있던 장소는 현재 민가가 되어 감시소의 흔적은 전혀 없지만, 유노쓰로 향하는 길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카네구치에서 고개를 넘어 니시타 마을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